

# 군산시, 정부예산 확보 노력 '결실'

### 2025년 국가예산 정부안, 작년 대비 26% 증가한 1조330억 확보 자연재난 대응·정주여건 개선 사업 등 신규사업 18건 대거 반영

군산시가 2025년 국가예산 정부안에 자연재난 대응사업, 정주 여건 개선,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을 정부 예산안에 대거 포함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시는 신규사업 18건 380억원, 계속사업 97건 1조950억원을 정부예산에 담으며 작년 정부안 대비 26% 증가한 1조1,33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을 반영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시의 끊임없는 노력과 체계적인 확보 활동이 빛을 발한 것으로 평가된다.

군산시는 부처 예산안 단계부터 사업별 부처의 반응을 점검하고 쟁점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기재부 심의까지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시장, 부시장, 간부 공무원이 직접 나서 관계부처와 기재부를 대상으로 주요 사업의 필요성·적정성·시급성을 설명하는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신영대 국회의원실과 공조하여 기재부 단계 총력 활동을 펼쳐 이번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시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신규사업 예산과 새만금 사업예산의 정상 반영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을 만들어 냈다고 밝혔다.

시민의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교육·생활체육·복지 등 시민 체감의 신규사업 예산을 확보하였다.

먼저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및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국립대 지역 연계 복합센터 건립사업(315억원),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교육을 혁신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사업(180억원), 현 여객선의 퇴역을 대비하고 섬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연도 항로 대체 여객선 건조사업(80억원) 지역농산물 활용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원하는 △농식품 상품권 지원사업(52억원) 등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었다.

지난해 챔버리 파행으로 새만금 사

회간접자본(SOC)예산이 대거 삭감되었지만, 올해는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정상 추진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새만금 신항만(1,382억원), △새만금 국제공항(632억원), △새만금 항 인입 철도(54억원), △새만금 핵심 광물 비축기지 구축사업(1,151억원), △새만금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사업(255억원) 등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항만·공항·철도 이어지는 복합물류 트라이포트(Tri-Port) 구축 및 이차전지 산업 기반 시설 조성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는 국가예산 확보 마지막 단계인 국회 단계에서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개야도 국가 어항 개발 등 아직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사업들에 대하여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NS푸드페스타는 9월 26~27일 합일 제4일반산단 내 하림퍼스트치킨에서 열린다. 익산시와 NS홈쇼핑이 NS푸드페스타의 성공 추진을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NS푸드페스타' 막바지 준비에 '총력'

### 익산시-NS홈쇼핑, NS푸드페스타 사전보고회 개최 홍보 영상 시연·행사 운영 설명 등... 축제 성공 다짐

익산시와 NS홈쇼핑이 'NS푸드페스타'(Food Festa 2024 in IKSAN)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4일 시청 회의실에서 정현을 익산시장과 NS홈쇼핑 조항목 대표이사를 비롯한 행사관계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NS푸드페스타 사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익산시는 제작한 홍보 영상을 처음으로 선보였고, NS홈쇼핑이 행사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진행했다. 이어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프로그램 질적 향상과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깊이 있는 의견이 오갔다.

'NS푸드페스타'는 오는 9월 26~27일 합일 제4일반산단 내 하림퍼스트치킨에서 열린다. 국내 최대 규모의 요리 축제로 지역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만큼 축제장 규모를 더욱 확장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했다.

행사의 주 무대가 되는 돌텐트는 900평으로 확대됐고 전국요리경연대회를

비롯해 상생식품관, 야외광장, 홍보부스 등이 운영된다. 상생식품관에서는 익산 대표 농특산물과 국가식품러스터 제조 식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야외광장과 홍보부스에서는 익산 대표음식점인 대물림 맛집 무료 시식과 농특산물 판매가 진행되고, 하림그룹의 신선한 식품을 한자리에서 보고 구매할 수 있다.

또한 프레쉬바에서는 닭 발골소를 보고 신선한 하림 닭을 이용한 음식을 시식하며 버스킹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아울러 식품관광을 연계한 '미식투어'와 식품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공 취업박람회 등 다양한 전시·체험 등이 상시 운영된다.

정현을 시장은 "NS푸드페스타를 20여 일 앞둔 만큼 성공적인 축제 운영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북 익산형일지리의 중심축인 하림그룹과 NS푸드페스타를 통해 100년 먹거리 산업을 선도하고 식품산업도시 익산의 입지를 다져나가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 최대 도시숲 '수도산 공원' 준공식 개최

### 둘레길·실내 수영장·헬스장·어린이 놀이시설·도서관 등 조성... 시민의 휴게 공간 역할 기대

익산시 두 번째 민간공원 특례사업 작품 '수도산 공원'이 준공식을 갖고 시민들을 맞이한다.

익산시는 4일 수도산 공원 준공식을 개최했다. 동산동 행정복지센터 맞은편 수도산 공원 주차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해 지역 정치권 인사들과 시민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현을 시장은 표용현 사업시행사 대표와 염동룡 총괄 사업관리사 대표 등 수도산 공원 조성에 힘쓴 4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어진 축하공연에서는 트로트 가수 박현빈과 나미애, 빈에서, 할리퀸, 김무진 등이 분위기를 한껏 끌어 올렸다.

수도산 공원은 기존 산지와 구름 지형을 활용해 둘레길을 조성한 도심 속 대규모 녹지공간이다.

주요 시설로 수도산 체육공원과 연계된 실내 수영장, 멋들어진 석가산 조경이 자리잡고 있는 산수정원, 연못과 정자가 어우러진 백재정원 등이 설치됐다.

특히 남부권 주민의 오랜 바람이었던 실내 수영장은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 생활의 질을 한 층 향상시킬 전망이다. 수영장과 헬스장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개장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도록 공원 곳곳에 놀이시설과 바다분수 등을 배치했다. 작은 도서관이 들어서는 복합문화센터는 온 가족 휴게 공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순항'

### 공약사업 91건 중 17건 완료·66건 정상 추진

민선 8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익산시 정현을 시장의 공약이 91.2%의 높은 이행률을 보이며 순항 중이다.

익산시는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현을 시장 주재로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정 시장은 부진 사업, 대규모 예산 소요 사업 등 13개 부서의 17개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꼼꼼히 확인했다.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공약의 조기 이행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익산시 민선8기 공약사업은 7대 부

아에서 총 91건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완료 17건(18.7%), 정상 추진 66건(72.5%), 일부 추진 사업 8건(8.8%)으로 전체 공약 중 91.2%를 완료 또는 정상 추진했다.

시는 공약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분기마다 점검해 익산시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또한 하반기 공약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시민배심원제를 운영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약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발굴 나서

### 익산시의회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연구회' 정책간담회 개최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오임선)'가 4일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의원들과 담당부서인 행정지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정기부사업 발굴 관련 내용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연구단체 대표인 오임선 의원은 "이미 최소 22개소의 지자체에서 지정기부사업을 발굴하여 모금을 시작하였

으나 익산시는 아직 이렇다 할 사업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기부자의 호응도와 지역주민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지정기부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오임선 대표의원을 포함해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올해 11월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및 각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경주·전주서

###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군산시는 4~7일 '제2회 고향사랑의 날'과 오는 6~8일 '2024 한가위 농수축산물 대잔치'에 참가하여 군산시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제2회 고향사랑의 날'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된 9월 4일을 기념하고,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작년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다.

올해는 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의 신호, 국민이 답하다'는 주제로 9월 4~7일까지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전국 시도별 부스 운영, 유공자 포상, 학술토론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이 부대행사로 진행된다.

한편 2024 한가위 농수축산물 대잔치는 전북일보 주관 9월 6~8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에서 개최되며, 지역 농수산물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위한 대규모 직거래 장터와 더불어 음식 판매 트럭, 공연무대 등이 함께 열린다.

군산시는 행사 기간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상담 △꽃게장·울외장 아이·쌀·박대·군산 팥빵라면 등 지역 특산물로 구성된 20개 품목 답례품 전시 및 시식 행사 △현장 기부 인증 기획 행사 등 다양한 방문객 참여 행사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게 하고 군산 답례품의 우수성도 알릴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 참가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를 널리 알리고, 군산시만의 매력에 담긴 답례품을 소개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와 군산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군산 고향사랑기부제는 현 주소지가 군산이 아닌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기부자는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온라인(고향사랑e음)과 오프라인(NH농협은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기부금은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를 위한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